

일제에 맞선 선조들의 함성 전주서 다시 힘차게

광복회 전주시지회, '3·13 만세운동' 재현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 맞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선조들의 함성이 전주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광복회 전주시지회(회장 오인택)는 12일 신흥고등학교 교정에서 광복회원과 보훈단체회원, 학생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 전주 3·13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이날 만세운동 재현은 신흥고등학교에서 풍납문 광장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가행진을 전개,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펼쳐 일어난 3.13 만세운동의 뜻을 기렸다.

또 풍납문광장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플래쉬몹과 함께 3·13 만세운동 재현극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1919년 3월 13일 당시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오인택 광복회 전주시지회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비극이 반복된다"며 "나라 잃은 설움과 일제의 폭압 속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조상들의 정신을 되살려,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가 신흥학교와 기전학교의 천도교, 기독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광복회 전주시지회는 12일 신흥고등학교 교정에서 광복회원과 보훈단체회원, 학생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 전주 3·13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 단합대회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최화숙) 운영위원 20여명은 지난 10일~12일까지 2박 3일동안 제주도를 방문해 문화탐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각종 사랑의울타리 팀장들과 운영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간 우애와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은 벚꽃바자회 등으로 봉사활동 기금을 마련해 관내 경로당을 찾아 떡국봉사 및 삼계탕 봉사 등을 펼쳤다. 또 저소득 세대에는 직접 만든 명절음식과 밀린찬 등을 전달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 최화숙 회장은 "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정읍 연지동, 새봄맞이 꽃단장 팬지 1500주 심어

정읍 연지동주민센터가 16개동 통장들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아름다운 꽃이 있는 활기찬 연지동'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들은 봄 꽃인 팬지 1천500주를 대형과 소형 화분에 심었다. 주민센터는 이들 화분을 청사 인파과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비치했고, 앞으로 정성껏 관리해 쾌적하고 화사한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기반조직원인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연지봉사대 등 50여명은 최근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과 타미널,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공한지 등 주변 취약지역에서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 500kg을 수거했다.

주민센터 관계자와 김종열 통장협의회장은 "주민 모두가 연지동의 주인이라는 자제로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힘을 모으자"며 "살기 좋고 쾌적한 연지동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양은옥 완산지율방범연합회장 취임

제 6대 완산지율방범연합회 회장에 양은옥씨(참뿔사물놀이대표)가 취임했다. 전주완산지율방범연합회는 지난 9일 평화동 알렌시아예당에서 김운덕 국회의원, 유성남 전라북도연합회장, 김영대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최락희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양은옥씨를 비롯한 2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장순식 회장의 이임과 양은옥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6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양은옥 회장은 30여년의 활발한 봉사활동과 여성방범지대 대장, 효재동지대 대장을 거쳐 전국 최초 여성연합대 대장에 취임했다.

신임 양은옥 회장은 취임사에서 "방범을 줄여서 야간순찰봉사를 하는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하나로 단결될 수 있는 완산연합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장순식 회장은 이임사에서 "여러 방범대원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도움이 있기에 2015년 전라북도 봉사단과 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대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호관찰소, 메가박스서 청소년 초청 무료 영화관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지난 12일 지역아동센터 2곳(호성, 솔빛)과 전주청소년직업생활관의 청소년 30명을 메가박스 송전점으로 초청해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의 주민 친화 사업 일환으로 치러지는 기념행사다.

안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친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회장 이광부) 정기총회가 지회 임원들을 비롯한 경로당 회장단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주요사업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는 올해 "나눔과 배움을 통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목표로 노인회 조직 및 역량강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노인취업과 일자리창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의 발전은 물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세계태권도 성지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를 일구어준 어르신들의 열정이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로 꽃필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임실 오수 '둔데기 마을학교' 한글 교실·전통놀이 등 인기

지난 4일 개강한 오수면 '둔데기마을학교(교장 이은재)'는 임실군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연계해 한글, 전통놀이, 다듬이 교실 등을 운영,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둔데기마을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주민복지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함양으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9개월의 일정으로 한글, 전통놀이, 다듬이 교실 등을 비롯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주 중앙동,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발대식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나경숙)에서는 11일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환절기 건강관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동 나경숙 동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중앙동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 노인복지회관 찾아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주덕진경찰서장(총경 박성규)은 11일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통안전교육에서는 노인 교통사고의 특성과 보행중 교통사고 예방방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덕진경찰서 관내에서만 지난해 교통사고는 25건이 발생, 이 중 보행자 사고는 14건, 65세이상 노인추락사고도 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덕진경찰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주요과제로 선정, 오는 2018년까지 보행자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박성규 덕진서장은 "노인층 교통사고는 대부분 무단횡단이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무주 적상파출소, 우리 탈출 송아지 주인 품으로 인계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적상파출소 정장인 소장은 지난주 안성면 금평리 도촌마을에 거주 홍표(76세)씨의 송아지가 우리를 벗어나 19번국도로 인성재를 넘어 적상파출소 사이를 일주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신고를 접했다.

정 소장은 바로 출동해 119구급대와 마을주민 등을 동원 약 2시간동안 송아지를 추적한 가운데 안전하게 주인에게 인계 해줬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경찰, 지역간 업무 협조강화 간담회 열려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11일 정전·상전파출소에서 교통경찰과 파출소 지역경찰간의 업무 협조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종배 생활안전과장에게 주재하여 교통경찰과 부귀, 정전·상전, 주전·용담파출소와 상전, 용담차안센터장들이 참석, 경찰서와 지역경찰간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교통사고사고 절반 줄이기" 방안을 토론했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교통경찰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공감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의했다. /진안=우태민기자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공사현장 안전점검 나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11일 광주대구고속도로(구. 88선) 등 공사현장 8개소에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날 공사현장 안전점검은 최근 화물차기 대구부산고속도로 갓길 공사현장으로 돌진해 작업인부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상태를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안전점검에 나선 순찰대원들은 공사현장에서 싸인카, 신호수 적정 배치 여부, 작업인부 보호 장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월간)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160-92 전주신문사 원삼로 222-4층 (세노빌)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985-418	종양지사 010-99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9-6989
삼천지사 010-2333-47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85	임실지사 010-9942-275
서산지사 272-94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004
호치지사 010-9985-9835	물북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4985	정읍지사 533-3767
	고산지사 445-1157	순창지사 653-9444	장수지사 010-382-2957
	익산지사 859-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선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